

이 맛에 삽니다 (하)

조형숙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믿고 놓아라, 놓는 만큼 얻어지고 나아 갈 수 있다.”
수시로 듣는 말이었지만 내 자신을 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인공, 근본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근본에서 모든 것이 나오므로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올라오는 그곳에 다시 맡기라고 합니다. 맡기라고는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맡기는 것일까?

상대에게 지갑을 주며 ‘가지고 있어’ 하듯이 주는 것일까?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 그 다음은? 말만 맴돌 뿐 감도 잡지 않았습다. 하지만 무조건 해보았습니다. 무식하다고 여길 만큼.

제 아들은 제가 마음공부 하는 데 큰 공부자입니다. 아들과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중요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매번 부딪힐 때마다 제 모습을 풀이켜 봅니다. 때론 분노에 휩싸인 제 모습을 보면서 좌절도 여러 번 하면서 ‘내가 마음공부를 하기는 하는 것인가?’ 하는 회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작고 가벼운 흔들림은 보는 것만으로도 찾아들었는데 강한 분노, 두려움 등은 쉽게 찾아들지를 않았습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아들 녀석이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결혼하면 우리 따로 살면 안 될까? 아무래도 내 각자가 불편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양보하면 어떨까?”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런 아들이 내던진 말 한 마디에 하늘이 내려왔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간을 아들과 말을 않고 살았습니다. 수행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오직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풀인 자식이란 말이 이런 것일까?’ 이런 생각들만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고통은 시간이 지

날수록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부처님께 매달려보았습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믿어지지 않던 주인공 자리에 무조건 맡겨 보았습니다. 자신을 본다고 하면서도 어찌저 못하는 내 감정에 묻고 또 대답했습니다.

‘그래 부처님 자리가 있다고 했지, 이 분노와 미움도 그곳에서 나왔을 테니까 도로 가져가라고 해야지. 문제도 그곳에서 만들었으니 당연히 그곳에서 해결해야 하잖아. 주인공! 지금 너무 힘들잖아, 모든 것이 부드럽고 원만하게 되도록 네가 해

습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놓는 연습을 해 보니 조금씩 상황이 찾아들었습니다.

어느 땐 제가 놀랄 정도로 분위가 바뀌고 회복되는 경우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주인공 자리가 있나보다’ 하는 믿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주인공에게 무조건 믿고 맡겨야지 내 욕심이나 집착 등이 개입되거나 또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과든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야

결혼 앞둔 아들의 분가 선언에 배신감

‘주인공’에 믿고 맡기니 원망심 사라져

모든 문제 자신 안에 있다는 것 깨달아

결해 봐!

그렇게 감질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부탁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옳은 방법인지, 제대로 하는 것인지 따져볼 생각 없이 조금 한 마음에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주인공, 주인공’을 속삭였습니다. 때론 너무 힘들어서 뭘 대로 되라 하는 마음이 올라 올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아들에 대한 원망심은 더욱 치성해졌습다.

주인공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솟아오르는 감정을 아들에게 쏟아버릴까? 아니면 아들과 의절하고 살까? 원망심은 가져서는 안 될 마음까지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진득하게 가다듬었

한다는 것을 사무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리분별을 떠난 그 상태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스님과 법사님께서는 항상 제게 “일단 해보세요, 한만큼 자기 것이 되고 해보아야 안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의구심과 견고하지 못한 제 신심이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책의 순간이 반복되면서 그만 두고 싶은 마음이 솟아올랐지만, 무작정 스님과 법사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마음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모든 문제는



그림 · 문병성

자신에게 있고 자신을 보는 순간 그 문제는 스스로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 해답도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면집중을 통해서 지금까지 남에게서 왔다고 느껴지던 문제가 자신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밖을 향해 있던 원망의 마음이 줄어들면서 내속의 허물을 벗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지요. 과거에는 자신의 잘못을 없애 마음만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실행하는 힘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주변이 밝아지고 특히 식구들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성을 가진 부처님의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모두 알아서 할 일을 내가 좌지우지하면서 통제하고 분별심으로 대하기만 했으니, 그런 습관과 업력에서 벗어나는 일이란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모든 것은 부처님 자리에 맡기고 저는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

할 밖에도. 또한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니 자기 공부수준에 따라 자기에게 걸려있는 집착이 경계로 오는 듯합니다. 자기 수준에서 충분히 풀고 갈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넘어야했지요.

분별심이 일어나고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곧 자신을 세세히 살펴면서 놓고가라는 신호일 테니까요. 더 열심히 할 기회이겠지

요. 그때 더 마음의 심지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제 다짐입니다.

부처님은 마음 밭을 가꾸는 농사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부처님 밭을 만나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거짓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같이었고 부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수행 정진하며 사는 삶이 제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귀중한 수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수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인편(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수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2005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 『현대불교신문 합본 11집』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 2005년 합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05년 한해 불교계가 지나온 발자취가 담겨진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상, 하 두권으로 나누어 불자들에게서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깊이 있고 다양한 불교교리와 불교문화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스님들께는 수행의 반례자라, 불자들에게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구입안내

- 구성: 상권 - 2005년 1월(507호) ~ 6월(532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 2005년 7월(533호) ~ 12월(558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편형: 신문원형 그대로 (40cm x 55cm) ● 절차: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상하권 총 80,000원 (납권 판매 불가)
- 입금계좌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주문 및 문의

- 구성: 전화 (02) 2004-8211, 2 / 팩스 (02) 737-0697 / Email: cetana@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고객1팀
- 과년도 한정판매 2000년~2002년 (6집~8집): 50,000원 / 2003년~2004년 (9집~10집: 상, 하권) 70,000원 ※판매가 많지 않아 한정판매 합니다.

고(古)건물 수리 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주영동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휴대폰: 011-804-1748

(주)천성건설

공사 개요

- ◆ 각종 설비공사 일체
- ◆ 석재, 부목 일체
- ◆ 석, 조각, 석물 일체
- ◆ 석, 불상, 좌상, 미륵
- ◆ 석, 탑, 미애불상조각
- ◆ 건설부문
- ◆ 석굴, 납골당 공사
- ◆ 석굴, 범당 조성
- ◆ 석, 축대 공사 및 보수
- ◆ 석 공사 일체
- ◆ 석굴, 저장실, 보관실

공사 완료

- 예산 탈해사 석굴 공사 50평 <지장전>
- 공주 석굴 범당 50평 조성 <백공선원>
- 상주 석굴범당 50평
- 우리동 축대공사 용덕사
- 가평 석굴범당 100평 조성
- 청평 자연돌탑공사 28개 조성

- ◆ 본 사: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87-1 벽산빌딩 301호 (기계 및 자재창고)
- ◆ 공 장: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94-2 (2층)
- ◆ 공사문의: 전 화 041)334-2567~9
H·P 010-8662-4841, 011-423-2040
전우이 재깁

(株)天星建設

눈, 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특허제품



◆인두막 겸 방가로 7000x4000x3200[mm] 흉보합인가격 650만원 → 550만원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조립식 인두막 전기 판넬만 깔면 겨울에도 사용가능

◆ 평상 1500 x 820 x 350[mm] 가격: 150,000 할인가: 120,000
1800 x 1030 x 350[mm] 가격: 180,000 할인가: 150,000
특수 제작한 폴리프로필렌은 눈비를 맞아도 썩거나 변형되지 않아 보수비용이 필요없음
특히 보온 조립이 간편하며 얼마든지 연결 사용 할 수 있는 평상

조경시설팀 전문업체 지구산업 TEL: (063) 323-3010~1
www.bangaro.com FAX: (063) 323-3012
평상.net / 원두막.kr

계좌번호: [농협] 505055-56-005933 예금주: 지구산업 박영호
전화주문시 무료배송 [전통목부기세밀도] 지역대리점 모집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월정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055)241-0374
휴대폰: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